



# 미주한인 CBMC 월간 뉴스레터 NEWSLETTER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당신을  
'일터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 12월 - 기적 중의 기적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장 14절)





미주서부 KCBMC총연합회  
회장 강승태

사랑하는 미주서부 CBMC 가족 여러분,

희망찬 새해 복된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수 없었던 사역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가든 그로브 지회와 산타클라라 지회 창립을 비롯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는 더 큰 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25일-27일 제2회 미주서부 샌프란시스코 대회를 "믿음으로 하나되자" 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사역을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준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대회를 위하여 예비하신 강사님들과 등록자들과 준비하는 CBMC동역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 하사 성령 충만 하시기를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각 지회가 매주 주시는 만나 말씀으로 탄탄하게 뿌리 내리게 하시고 연합회와 총연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하는 CBMC로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영어권 CBMC가 조속히 시작하여 후손들에게 이 귀한 사역의 유산을 전수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미주서부 CBMC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일터에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하며, 온전한 예배와 섬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많은 영적 성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주서부 KCBMC총연합회 회장 강승태



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



## 올해의 끝,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어느 때보다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마도 사랑일지 모릅니다.

흰 마가렛과 붉은 튤립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가렛은 서양 들국화인 데이지의 한 종류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꽃잎을 하나씩 떼어가며 사랑을 점치는  
그 꽃이죠. 꽃말도 '진실한 사랑, 사랑을 점치다'  
입니다.

'사랑의 고백, 영원한 애정' 이라는 꽃말을 지닌  
튤립은 한때 욕망과 투기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튤립은 16세기 후반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이색적인 모양으로 귀족과 대상인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였습니다. 자연스레 신분 상승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도 튤립을 선망하게 됐고, 황소 1천 마리를  
팔아야 튤립 구근 40개를 살 수 있을 정도로 값이  
비싸졌습니다. 튤립만 있으면 벼락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진 사람들이 늘면서 급기야  
투기의 대상이 되었죠.

욕망의 상징이었던 튤립이 어떻게 사랑의 상징으로  
변했을까요? 사랑 역시 욕망의 하나여서일까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랑을 좇고 있는지 고민하며  
마가렛과 튤립을 함께 그려보았습니다. 꽃잎을  
하나씩 떼어가며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점치던 순수한 설렘이 점차 욕망으로 변해버리는  
과정과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형태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신형철 작가의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는 사랑과 욕망의  
주된 차이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원하는지,  
상대방에게 '없음'을 원하는지에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원해서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실망한 채 그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없는 것을  
쫓는다면, '없음'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영원히 이별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서로의 빈 공간에 퍼즐 조각을 끼워 맞추듯 **우리를  
하나의 단단한 사랑으로 묶어주는 것은 '없음'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여태껏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을 좇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떨까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이 되었든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있음에 온 신경을 쏟습니다. 비싼  
명품가방, 외제차, SNS에 자랑하고 싶은  
근사한 식당에서의 저녁 시간.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느라 바쁩니다.

무언가로 나의 있음에 과시하는 대신 나의  
없음을 드러내고 그 공간에 누군가를  
초대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나의  
부족이 만들어낸 공간에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올 수 있을 때,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일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는 욕망이  
아닌, **서로의 결여로 만들어진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함께 밖으로 나가 길가에 핀 꽃의  
아름다움을 나누고,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풍경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습니다. 무향, 무취,  
무색의 세상도 함께라면 무의미하진 않을  
테니까요.



### 차례

기적 중의 기적	1쪽
강승태 총회장 신년사	2쪽
올해의 끝.....	3쪽
2023년 감사의 노트	4쪽
지회 탐방 - 북가주 연합회	5쪽
지회 탐방 - 트라이밸리 지회	6쪽
해 뜨는 곳 - 임봉대 목사	7쪽
땅끝향기 - 김보순	8쪽
광고	9쪽-10쪽
-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 남가주 신년 인사회	
-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 서부총연 조직도	
총회 및 모임 안내	11쪽

## 2023년 감사의 노트

조래현 (트라이밸리 지회)

몇가닥의 낙엽이 벽에 붙어있는 것 처럼 달랑 3일 밖에 남지 않은 2023년을 돌아보니 내게는 많은 감사한 순간이 나를 웃게 하고있다.  
주님께서 내 삶에 계셨기에 내가 힘을 얻었다.

**1월의 감사**는 늘 나를 설레게 한다. 연초에 생일인 나는 누구보다도 가슴이 뛰다. 지금까지 생명을 주시고 건강하게 새해를 맞으며 생일을 지나는 내겐 축복이다.

**2월의 감사 또한** 엄청난 감격과 기도의 응답에 감사한다. 큰아들이 믿음안에서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어, 온 가족과 친구, 친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3월은** 가족의 생일도 많다. 시어머님과 둘째 아들과 막내 딸이 생일이 있다. 둘째 아들은 큰 형보다 6개월 먼저 결혼하여 우리 부부에게 폭풍 같은 눈물을 선물했다.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있었는데, 살려 주신 하나님께서 결혼의 복을 주셨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고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4월의 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다. 나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신 주님.. 내가 뭐라고..? 부활의 예수님, 영생의 복을 감사할 뿐이다.

**5월이** 되니 나의 가정에 주신 은혜가 봄날의 벚꽃같이 이쁘다. 4자녀들과 2 며느리들의 효도를 받으며, 엄마된 특권을 맘껏 누리는 것 또한 축복이다.

**6월은** 우리 부부를 가슴 떨리게 한다. 올해가 결혼 40주년..결혼식 후에 바로 신혼여행을 가지않고, 결혼식을 한 그 날 저녁에 교회가서 우리는 철야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부탁드렸다. 감사의 눈물이 아직도 가슴에 있다.

**7월,8월,9월이** 벌써 왔네..셋째 아들과 남편의 생일..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주는 남편께 고마움이 항상 있다. 가끔은 내가 불평하고 짜증을 내어도 잘 참아준다. 나를 다듬어가자.

**10월**은 여행을 하기로 했다. 여행 전에 할일이 많았고, 페이먼트를 다 준비해놓고 가야 하니 무척 부담과 스트레스가 몰렸다. 그래도 여행은 잘 다녀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듯 했다.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야만 했다. 무엇인지 내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았다. 그래서 CBMC 초청에 응했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셨다.

**11월이 되면,** 감사의 언어들과 감사의 표현이 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는 찬송을 항상 부르며 고백한다. 온 가족이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눈물과 감동의 얘기를 듣는다. 구원의 은혜, 삶 가운데 베풀어주신 풍성함에 겸손해진다.

**12월이 되니,** Christmas!!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다려진다. 무슨 선물을 드릴까?..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에 결단했다. 가을학기 강의도 잘 마쳤다. 내 안에 나는 즐겁게 춤을 추고있다.

비전은 나를 움직이게 한다.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기다리며 계획하는 나의 습관에따라 적어본다. 새해가 기다려진다.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나온 2023년이 내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감사와 은혜의 떨림과 겸손의 시간 속에서 낮아지는 연습을 했다.

다시금 비전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 북가주 연합회 송년모임 - 2023.12.14



북가주 KCBMC 회원들이 조래현 지휘자의 선창에 따라 '여기에 모인 우리' 를 힘차게 찬양하고 있다

###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자”

미주서부 한인기독실업인총회(KCBMCUSA) 북가주 연합회(회장 계용식)는 2023년 송년의 밤을 지난 14일 오가네 이층 별실에서 6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함께 했다.

손대운 샌프란시스코 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행사는 조래현 지휘자의 찬양인도에 이어 실비아리 산타클라라 지회장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최계영 새크라멘토 지회장의 성경봉독후에 최승암 트라이밸리 지회 지도목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눅2:8-11)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계용식 회장의 환영인사에 이어 강승태 미주서부 총회장은 지난 1년동안의 사역보고를 통해 CBMC의 사역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것을 강조하며 2024년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대회를 위하여 기도 해 줄것을 요청했다.

이상준 목사(조이풀교회 담임)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만찬을 나눈후 이광용 트라이밸리 지회 부회장의 진행으로 게임 및 퀴즈와 함께 풍성한 선물을 나누었다.

이날 북미주 총연의 북가주 연합회 탁정업 전 연합회장과 회원들이 함께 했으며 이정기 전 북미주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가주가 주님안에서 연합하기를 소망한다고 강조 했다. 또 이협승, 이지영 탄자니아 선교사 부부가 샌프란시스코 공항 도착하여 모임에 직접 참석하여 큰 박수와 환영을 받았다.

임봉대 샌프란시스코 지회 지도목사는 합심중보기도를 통해 세계 평화와 북가주 연합과 내년 4월대회를 위하여 기도했다. 김이수 산타클라라 지회목사의 폐회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 해 뜨는 곳

## 임봉대 목사(샌프란시스코 CBMC)

곧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날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해 새벽에 동해로 갑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며 희망찬 새해에 대한 기원을 합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지만, 남쪽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남향을 선호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앞쪽 하면 남쪽을 가리킵니다.

남산이 옛 서울의 앞산이요, 남대문이 정문이었습니다. 집도 남향을 선호합니다. 궁궐의 정문인 광화문도 남쪽을 향해 있습니다. 임금의 집무실인 근정전에서 임금은 남쪽을 향해 앉고, 신하들은 임금의 왼쪽과 오른쪽 앞으로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남쪽을 향해 앉은 임금의 왼쪽은 동쪽으로 제일 앞에 왕세자가 서고 그 뒤를 정일품부터 순서대로 섰으며, 오른쪽은 서쪽으로 대군들이 앞에 서고 그 뒤를 종일품부터 순서대로 섰습니다.

성경에서는 앞쪽 하면 동쪽을 가리킵니다. 동쪽은 해 뜨는 쪽으로 창세기에 '에덴'이 있다고 해서(창 2:8) 인류 역사의 기점을 동쪽으로 표현합니다.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 올 때도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발원지로 "요단 저편 해 뜨는 편"(수 12:1)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생활을 할 때에 이동하는 성전이었던 성막을 칠 때에도 그 문은 반드시 동쪽으로 나도록 하였습니다(출 27:13). 동문 앞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쳤습니다(민 3:3-8). 예루살렘 성전의 문도 동쪽으로 나도록 하였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성전에 갔을 때에도 동쪽으로 난 문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겔 47:1).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는 서쪽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올 때는 동쪽을 향해 나왔습니다.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은 예배를 통해 모든 죄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언자들도 동쪽은 태양이 떠오르며 빛과 생명과 희망과 의와 구원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라고 선포했습니다(사 41:2; 겔 43:2; 말 4:2 등).

동쪽은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방향입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요 내일이 있는 곳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를 뒤로 하고 참 빛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앞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옮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땅끝향기

## 만남의 축복

김보순

치앙라이에 있는 카렌 총회 소속 학교에 한국어 교사를 소개하러 갔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다. 한국어를 가르칠 분이 나와 같은 초등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라고 하면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다. 선교지로 파송 받기 전에 근무했던 초등학교에서 만났던 분이다.

최 선교사님은 교사로 근무하면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교장 선생님이로 은퇴하셔서 3년 전에 치앙라이에 오셨다고 한다.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던 중에 우리가 속한 총회의 학교를 알게 되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난 것이다. 한국에서 살았던 이야기를 나누는 중 근무했던 학교 이름과 연도를 맞추다 뜻하지 않게 나와 연결되었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같이 먹고 자며 2박 3일 만남을 가졌다. 옛날에 찍었던 사진을 함께 보며 달라진 우리의 모습에 세월의 흐름을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대화하던 중 그분들이 선교사를 후원하던 때와 선교지에 직접 와서 느낀 것의 차이에 대해 나눔을 가졌다.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단기 선교로 갔을 때는 안 보이던 모습이 선교사로 와보니 보인다는 것이다. 열정적으로 선교를 준비하고 설렘으로 기다리며 조기 은퇴를 한 후 선교지에 왔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에 실망하셨다고 한다. 그분들은 자녀들 학원도 못 보내고 절약하면서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막상 와서 보니 선교 현장은 생각과 다르더라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다. 그게 나와 선교사들의 모습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들과의 만남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다.

맛있는 커피를 갖고 오셔서 같이 내려 마시고, 음식을 해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는데도 참 깊은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 태국에 와서 우리와의 만남으로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는 그분들의 고백이 당혹스러웠지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태국에 와서 처음으로 현지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현지인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닌 그들로부터 받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태국인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었다고 했다. 선교사들에게 항상 달라고만 하는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카렌 분들에게서 계속해서 배운다는 우리의 고백이 새롭게 다가왔다 보다.

그날도 카렌 분들에게 받은 쌀로 밥을 했고, 주신 호박으로 호박죽을 끓였고, 여행 선물로 나눠준 대추야자로 그들의 사랑을 나누는 것 밖에 없는데 말이다. 선교지에 처음 왔을 때 태국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선배 선교사님의 안내가 있었기에 항상 마음에 두는 부분이기도 하다. 사실 카렌 분들이 교회의 자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선교사가 할 일은 그분들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장점들과 귀한 전통을 알려주는 것이다.

신기하고 기적 같은 만남이었다. 돌이켜보면 선교지에서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다. '선교는 만남' 이라고 결론 지어도 될 것 같다. 선교지에서 보낸 25년 동안 참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만남을 하게 하셨다. 약속된 만남도 있었고 갑작스러운 만남도 있었다. 미리 계획된 만남도 의미가 있지만, 우연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던 만남도 의미가 있었다. 현지에서 카렌 분들과의 만남이 특별했고, 세계 각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도 그러했다. 한국에서 오신 분들과의 만남도 귀하고, 같은 팀 선교사님 가정들과의 만남도 특별하다. 만남의 기회를 통해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다. 다양한 상황들을 나누는 동안 여러 기도 제목들이 드러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게 된다. 만남은 서로의 사정을 듣고 나누고 공감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선교사로서 내가 누리는 복 중 하나이다. 한국에 있었으면 만날 수 없었을 다양한분들을 만나게 된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만남이 우리를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만남의 장소도 다양하다. 카렌 분들의 경우 몇 시간을 운전하여 마을과 교회로 찾아가서 만나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의 만남도 많다. 많은 경우 집에서 만난다. 우리 집이 만남의 장소가 되고 교제의장으로 쓰임 받음에 감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만남의 장을 펼칠 수 있을지 기도하며 준비한다.





미주한인 기독교실업인회  
Kcbmc USA, Inc

# 신.년.하.례.회

## 이 춘근 박사 초청강연회



송정명 목사 (미주주 성서와 운동 공동 대표회장)

일시: 2024년 1월 5일 (금) 오후5시  
장소: 아로마 스포츠 센터 5층 연회실  
(3680 Wilshire Blvd., LA, CA 90001)



이 춘근 박사  
연세대 정외과 및 대학원 졸업  
텍사스대 국제정치학 박사  
현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

### CBMC 미주기독교실업인의 비전

CBMC의 비전은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입니다. 이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CBMC의 사명을 다음 세 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리더십을 개발하여 영적 비즈니스리더로 육성한다 (리더십 개발)  
일터 현장에서 성경적 경영을 적용하여 세상에 선한영향력을 끼친다 (일터 변화)  
실업인과 전문인을 전도하고 양육하여 영적 재생산자로세운다 (전도/양육)

### CBMC의 미주기독교실업인회의 핵심가치

1. 성경적 원리가 사역과 사업의 기준이다.
2.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소중하다.
3. 일터는 소중한 사역현장이다.
4. 부부회복을 통해 가정을 올바로 세운다.
5.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
6. CBMC의 비전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게 만든다.
7. 교회 및 선교단체와 협력하고 민족과 열방을 섬긴다.

- 주 관** 기독교 실업인회 남가주 연합회
- 후 원** 남가주 교회협의회, 남가주 연세대 동문회, 연목회, 자유 민주 통일 동우회  
미주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 특별 후원** 서울메디칼그룹, 한미메디칼 그룹

## 제2회 서부대회 및 리더쉽 스쿨

연제 : 2024년 4월 25일~27일

어디서 : Embassy Suites by Hilton  
SF Airport Waterfront  
150 Anza Blvd,  
Burlingame, CA 94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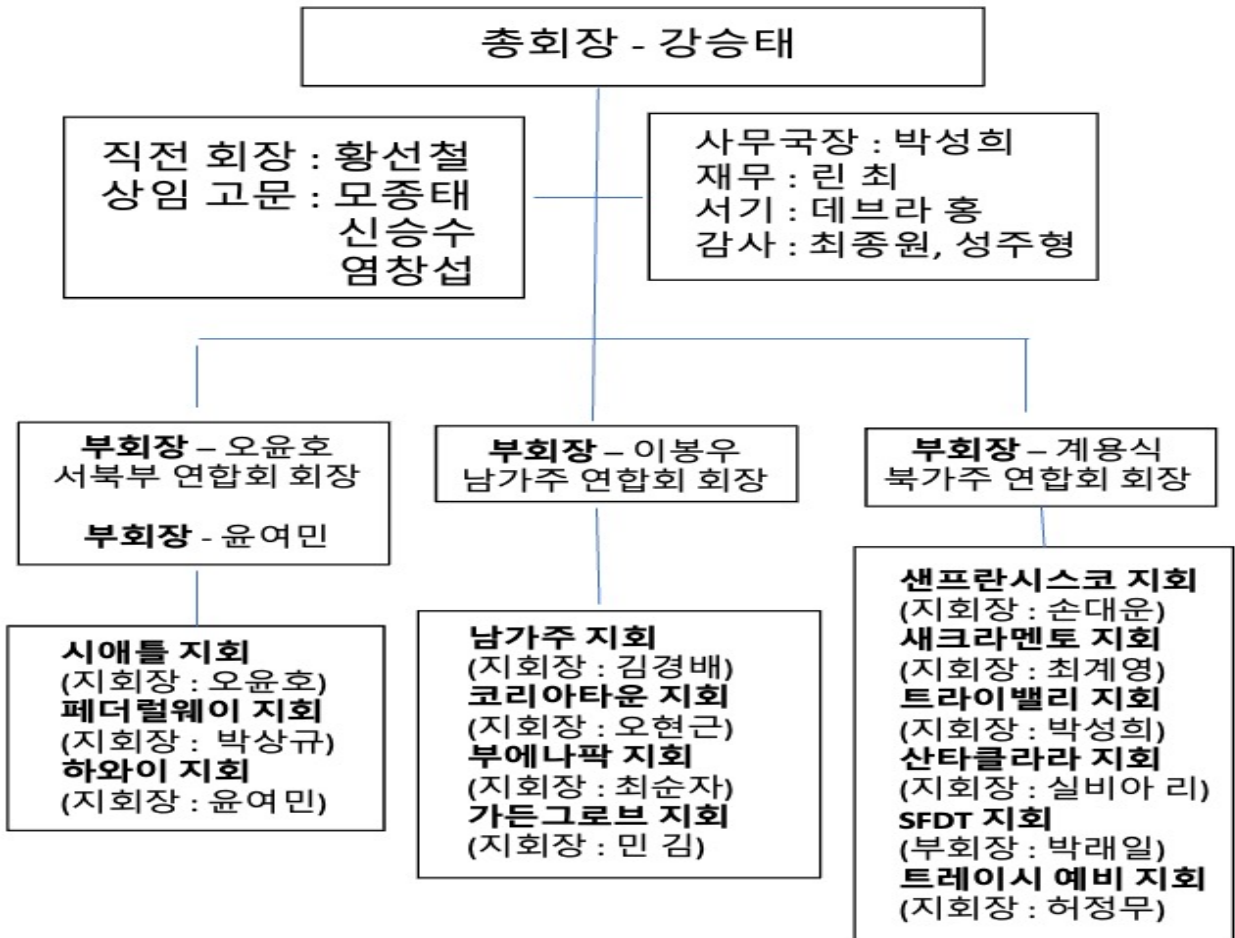
주최 :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서부총연합회

# 우리지회 월간 스토리

**우리 지회 월간 스토리**  
 연합회장님, 지회장님과 총무님!  
 지난 한 달간 지회모임을 하셨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귀한 사역의 이야기  
 - 회원 동정 ( 사업확장, 개업,  
 조경사)등  
 귀담아 듣겠습니다. 😊



미주한인기독실업인서부총연합회



## CBMC (기독교실업인회) 목적

실업인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기독교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이 지상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마태복음 28 : 18-20, 사도행전 1 : 8)

###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

**2023 주제 :**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전 11:1)

Cast your bread upon the waters

**목표 :** 성경적 경영과 섬김의 리더쉽 **표어 :** 100개 지회 (재) 창립 역량강화 일터복음사명

CBMC <Connecting Business & Marketing to Christ>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실업인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CBMC는 1930년 미국에서 태동했으며, 기독교실업인 (사업가)과 전문인들의 모임으로 현재 전 세계 96개국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CBMC는 실업인과 전문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주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국제적 사명공동체입니다.

한국CBMC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국내 273개 지회, 해외 130개 지회가 있으며 7천5백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한인들의 기독교실업인회는 1975년 남가주에서 출발했습니다. 2019년 1월25일 창립된 미주한인 CBMC 서부총회는 2020년 1월 25일 서부총회 명칭을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 총회 (KCBMCUSA), 2022년 10월 18일 미주 한인 기독교실업인 서부총연합회 (KCBMCUSA)로 변경했습니다. 총연은 서북부 연합회 (워싱턴, 오레곤, 알래스카주와 밴쿠버, 하와이), 북가주 연합회, 남가주 연합회 3개 연합회의 각 소속 지회로 구성돼 예수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 CBMC 연합회 지회 모임 안내 : COVID-19 사태로 비대면 ZOOM 화상 / 대면 회의 및 기도회

<p><b>남가주 CBMC 연합회</b> (연합회장 이봉우)</p> <p>남가주 지회 (회장 : 김경배)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코리아타운 지회 (회장 : 오현근)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부에나팍 지회 (회장 : 최순자)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30</p>	<p>가든 그로브 지회 (회장 : 민 김)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후 5:00</p> <p><b>북가주 CBMC 연합회</b> (연합회장 계용식)</p> <p>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 : 손대운) 모임 : 매주 정례 (금) / 줌 *시간 : 오전 7:00</p> <p>새크라멘토 지회 (회장 : 최계영) 모임 : 매주 정례 (화) / 줌 *시간 : 오전 6:30</p>	<p>트라이밸리 지회 (회장 : 박성희)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산타클라라 지회 (회장 : 실비아 리)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SF 다운타운지회 (부회장 : 박래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p>트레이시 예비 지회 (회장 : 허정무) 모임 : 주별 비정례</p>	<p><b>서북부 연합회</b> (연합회장 오윤호)</p> <p>시애틀 지회 (회장 : 오윤호) 모임 : 매주 정례 (목) / 줌 *시간 : 오전 7:00</p> <p>페더럴웨이 지회 (회장 : 박상규) 모임 : 주별 비정례</p> <p>하와이 지회 (회장 : 윤여민) 모임 : 매주 정례 (수) / 줌 *시간 : 오전 7:00</p>
---	---	---	---